

# 週刊 한국

한국일보 하와이지사  
매주 토요일 발행  
1982년 12월 11일



“자랑스러운 우리 엄마” ... 하와이 한국성인교육회가 해마다 주최하는 문화의 달 축전 글짓기부문에서 「또 다른 사랑을 알게 된 나」로 최우수상을 수상한 권순애씨.

항상 글속에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대견스러운 두 아들 철오 (9), 형석 (7) 형제가 엄마의 수상을 함께 기뻐하고 있다. 권씨는 작년에도 「꾸러기 형제」로 장원을 한바 있는데 글쓰기와의 인연은 여고시절 교지 편집일을 본것이 고작. 「각박하고 고달프기만한 이국생활 속에서 글을 쓸 여가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소중한 행복」이라며 부군 권영창씨의 배려에 은근한 감사를 표한다.



Center for Korean Studies  
University of Hawai'i at Mānoa